

  Jeju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0. 3. 24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자치경찰단	보도자료 PRESS RELEASE	교통정보센터장	김상대	710-6276
		자치경위	이승훈	710-6426
동영상(웹하드)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후속 자료 : 없음

자치경찰단 민식이법 관련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적극 대응

- 통학로 諸 사무 자치경찰로 일원화, '제주형 안전통학로' 조성 추진 -

-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(단장 고창경)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‘민식이법’ 과 관련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신설, 통학로 내 CCTV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.
- ‘민식이법’ 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이 우선 설치되며,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시 기존보다 처벌수위가 강화됨을 골자로 한다.
- 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 5일 전국 최초 선제적으로 자치경찰단 내 ‘어린이통학로 안전팀’ 을 신설했으며, 통학로 상 민식이법에서 정한 신호기·과속단속용CCTV 설치를 비롯한 방범용 CCTV·불법주정차단속용CCTV·일방통행로 지정·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·방범안전 시설을 설치·지정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올해 4월중에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.

- 또한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12억8천만원(행안부 40%, 도비40%, 교육부20%)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단속장비 및 신호기등 안전시설물을 확충·보강하고 있으며, 조례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등 확대 사무의 시설개선은 관계부서와 협의, 예산 재배정을 받아 촘촘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.

-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“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 구역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라는 확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” 며 “전담팀을 중심으로 오라초등학교와 같이 수년간 열악한 통학환경에 처한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통학 환경 개선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- 이어 “올해 목표는 도내 현재 개선사업 추진 중인 오라초등학교를 비롯한 4~5개 초등학교가 될 것” 이라고 덧붙였다.